



# 연개소문

박 성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고구려의 장수 연개소문을 소재로 한 중국소설을 이룸하여 〈갓선동전〉이라 하였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고구려에 연국혜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나이 오십이 되도록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 지성으로 빌었더니 드디어 옥동자를 보게 되었다. 갓선에 얻은 아이라고 하여 갓선동이라 이름짓고서 급이야 옥이야 하면서 길렀다. 어느 덧 아이가 일곱 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사가 지나다가 대문밖에서 놀고있던 갓선동을 보고 “아깝다”하면서 가 버렸다. 아버지 연국혜가 이말을 듣고 도사를 따라가 “아깝다”고 말한 까닭을 캐어 물었다. 처음에는 한사코 대답하기를 꺼려하던 도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아기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한데 애석하게도 명이 짧아 일찍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혜는 도사에게 다그쳐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단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도사는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이 아이가 외아들이라고 귀엽게만 키우고 있는데 그러지를 마십시오. 15년동안 눈을 딱 감고 이 아이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도사는 이런 엄청난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때부터 연국혜는 고민했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외아들을 버린단 말인가. 그러나 다시 고쳐 생

각하여 보니 이 아이를 감싸고 있다가 죽이느니보다 놓아주어서 큰 인물이 되게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여겼다. 그래서 연국혜는 어느날 몰래 하인을 시켜 아이를 먼 곳으로 데려다 버리게 했다.그러면서도 뒷날 이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등에다 갓선동 석자를 문신했다.

갓선동이 버려진 곳은 강원도 원주의 鶴城洞이었다. 학성동에는 柳씨라는 갑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앞 냇물에서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새벽에 냇가로 나가 보았더니 한 남자아이가 있고 등에는 갓선동이라 새겨져 있어서 갓선동이라고 부르면서 집에 데려다 길렀다.

인물은 잘 생겼으나 그 신원을 알 길이 없어 유씨는 갓선동을 머슴처럼 부려 먹었다. 하루는 갓선동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통소소리가 들려서 빈 지계를 세워 놓고 소리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다. 통소는 백발노인이 불고 있었다. 의아하게 바라보는 갓선동을 보자 노인은 말했다.

“너는 갓선동이가 아니냐? 너 같은 아이가 지계를 지고 나무를 하고 있다니 말이 안된다. 지금 당장 공부를 하여라.”

갓선동은 이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노인의 얘기를 들었다.

해가 저물자 노인은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 갔다가 내일 다시 이 자리로 오라고 하면서 사라졌다. 갓선동이는 돌아서서 내심 나무 걱정을 하며 지계를 세워 놓았던 곳으로 갔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세워 놓았던 빈지게에 나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부터 갓선동의 공부는 시작되었다. 검술에서 병서, 천문, 지리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 없이 가르쳤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지게에는 나무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갓선동이 사는 유씨의 집에는 딸만 셋이 있었다. 문희, 경희, 영희였는데 그 중에 막내딸 영희가 가장 마음에 고왔다. 어느 날 유씨는 갓선동을 불러 세 딸들을 가마에 태워 꽃구경을 시키라고 분부했다. 갓선동이 유씨의 분부대로 먼저 큰딸 문희의 방문 앞에 가마를 대령했더니 문희는 버선발로 마루에 나와 “아이고, 내가 맨땅을 어떻게 디디느냐. 갓선동이 내가 거기 없으리라” 하는 것이었다. 갓선동이 없으리니 문희는 그 등을 밟고 가마에 타는 것이었다.

경희 또한 그 모양이었다. 영희도 그러려니 하고 갓선동이 미리 땅에 없으려더니 영희는 깜짝 놀라면서 갓선동을 일으켜 세웠다. 갓선동은 영희의 착한 마음에 감복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장래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영희는 똑똑한 처녀였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부잣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남자다운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 하여도 남자가 아니라면 저의 남편될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비록 머슴이라 하더라도 남자라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잠직한 소리를 하면서 영희는 “여기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국인 중국으로 가십시오. 적을 쳐서 이 나라를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제안을 했던 것이다.

갓선동은 어느 날 영희가 몰래 주는 금가락지를 품에 넣고 중국으로 떠났다.

중국에서 말을 배우고 그 지세를 탐지하고 황실에 들어가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는 신하가 황제에게 “갓선동은 비상한 인물이나 중국인이 아니오니 언젠가는 배반할 것입니다. 미리 제거해 버리는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갓선동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옥에 갇힌 갓선동은 황제가 사냥하러 황실을 비운 사실을 알고 찾아온 공주에게 하소연하였다. 공주는 평소 갓선동의 남자됨에 반했던지 그만 옥문을 풀어주었다.

황제는 갓선동을 공주가 풀어준 것을 알고 그녀를 처형했고 갓선동은 무사히 국경을 넘어 고구려땅을 밟았다.

대개 「갓선동전」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상과 같은데 어찌서 이 이야기가 연개소문을 소재로 한 것이냐 하면 갓선동의 갓은 연개소문의 蓋자에 해당하며 원은 蘇文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옛 말을 한자로 옮길 때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변하였기 때문에 이 해석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연개소문을 주제로 한 또 하나의 중국소설로 「유림객전」(蚶髯客傳)이 있다. 이 소설도 연개소문을 주제로 한 것이 틀림없다. 蚶髯이란 얼굴에 수염이 많다는 것이고 멋있는 수염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지금 대만의 한 박물관에 개소문의 가면이 있다고 하는데 개소문이란 곧 연개소문이다. 이 가면의 형상은 무서운 얼굴에 검은 수염이 특징이라고 한다. 신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는 을지문덕의 가면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이 침략자가 아니었다면 가면까지 만들리아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을지문덕을 숭상하지만 연개소문은 별로 좋은 인물로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중국의 역사책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덩달아 나쁜 인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연개소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그는 고구려의 위대한 개혁자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장수로서 당나라 침략군을 무찔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여 멀리 중국땅까지 침략해 들어간 위인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중국땅에 들어가 미리 적정을 살폈던 것이다. 연개소문을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나쁘게 평가한 것은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또 유교적 윤리에 어긋난 不義의 인물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갓선동기와 영희의 결말이 궁금할지 모른다. 갓선동이 귀국하여 아버지를 뵈었고 이어 정식으로 영희 집에 청혼해서 두 사람은 결혼했다고 하니, 결국 이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전이 그러했고 다른 모든 고대소설이 그러했듯이 「갓선동전」 역시 주인공은 작자에 의해 행복하게 살도록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